

## [국고] 2024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의총평

- 사업명 : 2024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 회의일시
  - (서류심의) 2024년 4월 2일(화) 14:00~17:00
  - (PT.인터뷰 심의) 2024년 4월 11(목) 10:00~18:30
- 회의장소 : 비대면 ZOOM

올해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에는 82건이 신청되어 최근 메타버스 예술활동에 대한 우리 예술인들의 창작열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행정결격을 제외한 총 81건의 사업계획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1차에서 15건을 선정하고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7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실시간성', '상호작용', '가상자아', '경험가치'로 요약되는 메타버스 속성과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예술 프로젝트를 제작-발표할 수 있는 예술단체 및 기업의 창작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메타버스 예술창작 활동의 초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이상 수준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심의기준은 사업이해도 및 계획충실성(30%), 수행역량(40%), 기대효과(30%) 3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사업이해도 및 계획충실성은 지원단체가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속성을 얼마나 원활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정도와,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가지고 향유자 중심의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는지 등 계획서의 충실도에 대한 기준이다. 수행역량은 사업계획의 참신성과 예술성의 수준, 창작-향유 계획의 적합성, 창작-발표-기술의 협업체계의 적절성, 그리고 이전 메타버스 작품 창작 경력의 우수성 등 예술성 있는 메타버스 예술 콘텐츠를 극대화하는 총체적 역량에 관한 기준이다. 기대효과는 사업계획서가 제시하는 메타버스 예술의 긍정적 방향, 발전 가능성 그리고 창작-향유의 확장성 등에 관한 기준이다.

이러한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중점으로 하여 사업 계획서를 심의하였다. 먼저 메타버스 플랫폼이 없이도 창작 가능한 사업 보다는 메타버스 특성을 명확히 살리며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더불어 '예술과 기술의 적절한 융합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성을 발현시키는 사업들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창작-발표-기술의 협업체계 구축의 적절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이 부분을 유의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선정되었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다른 기관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 이전 작품과는 다른 차별성과 참신성이 두드러진 경우 수용하고자 하였다. 기존 전시, 공연 등의 창작 작품을 단순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선정을 지양하였으며, 메타버스 속성을 분명히 적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기획,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선정을 지향하였다. 또한 본 지원사업은 향유적 측면도 중요함에 따라, 제공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향유자의 충분한 상호작용과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는 '향유자 경험성' 이 우수한 사업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예술 콘텐츠가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향유자와 풍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확장성이 기대되는 사업들도 눈여겨 보았다.

선정된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사업계획의 참신성과 차별화, 예술성 있는 주제 제시, 메타버스 매체 특성의 적절한 활용,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작-전시-기술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활용의 적절성, 우수한 향유자 경험성, 높은 실현가능성 그리고 창작 결과물의 확장 가능성에서 강점을 보였다. 선정된 모든 단체가 이러한 강점을 고르게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비선정된 단체에 비해 균형적으로 위의 강점을 보여주었다.

메타버스 문화는 현재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성 발견의 길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현장에서 메타버스 예술 창작을 위한 많은 도전이 있음을 목격하였으며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한편 예술성과 기술성의 부조화로 인한 아쉬움 또한 여러 사업계획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예술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연계와 조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 예술인들의 시도를 통해 조금씩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속적인 예술창작지원을 당부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사업에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일동